불자 세상보기

#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사회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민주정부 10년 동안 시도된 개혁에 대한 피로도와 경제발전에 대한 과도한 강박관념으로 국민들이 소위 '경제대통령'을 선택한지 어느덧 4년째 접어들고 있다. 애초에 불가능했던 747 - 7% 성장, 4만불 소득, 세계 7위 경제달성 - 공약(公約)이 말 그대로 공약(空約)이 된 건 차치하더라도 경제성장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국민에게 요구하는 대가는 너무 크며, 그 과실은 너무나도 고통스럽다. 성장을 통한 분배라는 현 정부의 가치는 온데간데없고, 사회경제적 양극화는 물론 상대적 박탈감은 커져만 가고 있다. 이에 대한 시민사회의 비판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 지상주의의 기치아래 현 정부는 경제 외적인 사회문제를 모두 이념적으로 재단하는데 일가견을 보이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촛불시위, 미네르바 사건처럼 정부정책에 대한 시민의 비판, 반생태적 4대강 사업에 대한 반대운동, 무자비한 도심재개발에 희생된 용산참사, 불공정한 한-미/한-EU FTA협약에 대한 반대, 기업에 대한 건전한 비판, G20 회의에 대한 반대의견, 심지어는 우리가 그토록 희망하는 서구 선진사회에서 보편화된 무상의료, 무상교육 주장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가치에 반하는 모든 주장이 민주사회의 공론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상적인 정쟁의 하나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자동적으로 불순한 세력의 음해로 간주된다. 이념의 과잉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더 심각하고 근원적인 문제는 틈만 나면 '국격'을 강조하는 정부여당의 행태이다. 지난 3년 동안 국회에서 여당이 주도한 날치기 파동은 빠짐없이 행사되었으며, 올해 내내 많은 공공사업에서 국고지원금을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야기할 작년의 예산 날치기 파동은 화룡점정이었다. 한편, 시민사회의 감시와 통제기능을 통해 호된 비판을 받은 정부인사들은 전가의 보도처럼 걸핏하면 '명예훼손 및 무고죄'로 대응하고 검찰은 일방적인 수사권을 남발하여 시민사회의 건전한 비판기능을 원천봉쇄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소위 '합법적' 폭력이라는 국가권력을 지닌 정부와 집권여당에 대한 시민사회의 불신은 극에 달하고, 이에 대한 정부여당의 대응도 점점 더 거칠어지는 폭력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우려되는 점은 정부여당의 이러한 태도가 직간접적으로 사회의 폭력현상을 조장해내지는 방조한다는 점이다. 폭력의 현상은 다양하다. 법과 질서의 이름아래 빈번하게 시민사회를 겨냥하여 자행되는 공권력의 행사, 최근 피해자의 부모에 의해 알려진 전의경 구타사건처럼 국가권력의 무관심 속에서 물리력이 직접적으로 행사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현 정부 내내 인사만 하면 터져 나오는 각종 비리에 대한 불감증, 소위 '고소영', '강부자'내각으로 대변되는 특정 지역, 학맥, 종교에 대한 편향은 힘없는 시민사회에 대한 일종의 간접적 폭력에 해당된다. 이러한 폭력은 또 다른 극단적인 태도를 유발한다. 최근 몇몇 대학의 청소노동자들에 대한 해고사태에서 보이듯 권력을 향유한 집단은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약자에 대해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고, 거대권력에 무력한 사람들은 반대로 자신들끼리 폭력적인 모습을 답습한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작은 일에도 과도하게 목청높인 주장을 펴고, 누군가 조금이라도 자기영역을 침범하면 흥분하고 폭력적인 대응을 보이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목격한다. 인터넷에서 동영상을 통해 알려진 소위 지하철 욕설녀 및 성추행사건, 교실에서 학생들의 교사에 대한 위협, 나아가서 욕설 한마디라도 섞지 않는 대화가 없을 정도의 학생들의 언어폭력에 이르기까지 사회 곳곳에서 점잖은 말소리와 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점차 사라지고 있다. 물리적 폭력보다 얼어붙은 마음의 폭력이 겨울 한파보다 더 차갑게만 느껴지는 건 단지 필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나는 사회지도층이 모두 도덕적이고 금욕적이어야 한다는 실현 불가능한 주장을 펴지는 않는다. 그러나 최소한 이들이 사회 속에서 구타유발자는 되지 말아야하지 않겠는가? 말로만의 '공정사회'가 아닌, 지난 해 우리사회의 최고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책 제목처럼 최소한의 '정의'는 작동하는 사회가 되길 희망해본다. 최소한 평범한 사람들 속에서라도.

사부대중 칼럼

# 아버지 내복 덕에 대학 다닌 패셔니스타

나수현
넥센타이어 근무

우리 아버지는 근 20년을 건설회사에서 근무하셨다. 회사에 다닐 때 아버지의 일과는 살인적이었다. 5시 기상, 출근 준비 및 식사를 마치고 5시 30분 출발. 현장에 도착하면 작업자들과 국민체조로 아침을 시작, 조별로 모여 있는 작업자들에게 그날의 할 일을 설명, 설명이 끝나면 현장을 돌면서 작업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 둘러보는 것. 즉, 하루 종일 바깥에서 일을 하셨다.

겨울 건설 현장이 얼마나 추웠는지 아버지 출근 복장은 이러했다. 상하의 내복, 축구양말을 무릎까지 올려 신음(가끔 양말을 면바지 위로 올려 신기도 함), 티셔츠, 그 위에 니트 스웨터 그리고 작업 점퍼. 특히 내복은 두 겹을 입을 때도 있었다.

결코 멋있다고 할 수 없는 모습 때문에 나는 어렸을 때 다른 아버지들처럼 양복과 넥타이에 서류가방을 들고 출근하지 않는 아버지를 조금 창피해 했던 것 같다. 어머니의 말에 따르면 나는 아버지가 내복 입는 것과 그 위에 축구양말 올려 신는 것을 특히 싫어했다고 한다.

퇴직하신지 10년이 됐는데도 아버지는 겨울만 되면 내복을 찾으신다. 등산할 때, 낚시할 때는 물론이고 집안에서는 내복만 입고 계신다. 나는 커서도 아버지가 내복을 입는 것이 싫었다. "아빠 집에서 그 내복 좀 입지 마. 흉해." 그러면 아버지는 또 내복이 위대하다는 둥 얼마나 훌륭한 옷인줄 아냐는 둥 이상한 예찬론을 펼쳤다.

입사 초기, 신입사원들의 현장 실습 명목으로 모터스포츠 행사에 지원을 나갔던 적이 있다. 1박 2일로 진행되는 레이싱 경기장에 야외 부스를 설치하고 행사장에 방문한 관람객들에게 나눠줄 간단한 기념품이나 음료 등을 준비하는 일을 해야 했다. 현장에는 경기 시작 3시간 전에 입장해 부스 설치 등 사전 준비를 마쳐야 했다.

아버지가 기상하던 시간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했다. 얼른 준비하고 집을 나서려는데 거실에서 주무시던 아버지가 말했다. "야, 내복 입고가. 얼어 죽어."

나는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싫어. 둔해 보이고 구려." 자신 만만하게 출근길을 나섰지만, 새벽에 외출 해 본적 없는 나는 새벽이 그렇게 추운지 처음 알았다. 아파트 현관문을 열자 새벽바람이 칼날처럼 옷 속을 파고들었다. '이런 것이 진정한 추위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곧바로 아버지의 "내복 입어, 얼어 죽어"라는 경고가 생각났다.

하지만 나 같은 패셔니스타가 내복을 입음으로써 뚱뚱해보이고 소위 옷발이 서지 않는 것은 참을 수 없었다. 그런 생각도 잠시, 이제 정말 내 몸뚱이 추운 것 외에 다른 생각은 들지 않았다. 버스를 기다리는 3~4분이 그렇게 길게 느껴질 수 없었다. 패셔니스타도 숨이 붙어있어야 패셔니스타겠구나 싶어 집으로 돌아갔다. 장롱 서랍을 뒤져 중학교 때 마지막으로 입었던 내복을 찾아보았으나 남아 있을 리가 없었다.

그때 아버지가 자기 내복을 건네며 "야, 내 것이라도 입고가. 내복이 쫄쫄이라서 너한테 맞을 수도 있어." 나 같은 패셔니스타에게 남자 내복을 입고 나가라니 어처구니가 없었다. 잠도 덜 깬 아버지에게 마구 짜증을 냈다.

내복을 입지 못하고 나는 다시 출근길에 올랐다. 행사장에 도착하니 정말 너무 추웠다. 다른 직원들은 모두 내복을 입고 온 모양이었다.

정말 너무 추워서 '아빠 내복이라도 입고 올걸…' 하고 후회하는 와중에 아버지에게 전화가 왔다. "내복도 안 입고 갔는데 춥지 않느냐, 원래 해뜨기 전이 제일 추운 법이다, 혼자 서 있으면 더 추우니 사람 많은 곳에 같이 서 있어라, 너는 밥도 안 먹었으니 더 추울 것이다" 등 겨울 새벽 현장의 조언을 해 주었다.

전화를 끊고 생각해 보니 아버지 직장생활 20년 동안 20번의 겨울을 내복이 없었으면 어떻게 견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애를 낳아봐야 엄마 마음 안다더니 나는 새벽 야외 근무를 해 보고서야 '아버지가 이렇게 고생을 해서 우리 가족이 먹고 살았구나, 내가 대학에 다녔구나, 내가 고생 모르고 곱게 자랐구나, 아버지한테는 신경질을 내면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 생각해도 살이 얼얼한 나의 겨울 현장 근무 내내 아버지 생각을 했다. 태어나서 아버지 생각을 제일 많이 한 날이었다. 그 날 패셔니스타는 난생 처음으로 내복 쇼핑을 했다. 이 글을 통해 모든 아버지들에게 파이팅을 전하고 싶다. 특히 따뜻한 실내가 아닌 추운 현장에서 고생하며 일하시는 아버지들에게 파이팅!

社說

## 142대 2대 1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4년째 불교문화상품 공모전을 해오고 있다. 공모전은 내·외국인들에게 한국불교 및 템플스테이에 대한 호감과 관심을 높여 한국불교를 세계화하고 대중화시키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올해도 어김없이 불교문화상품 공모전 대상이 발표됐다.

시상식에 즈음해 사업단은 수상작들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로비에서 전시를 시작했다. 매년 대상 1편과 우수상 2편 등 4년 동안 쇼윈도우를 거쳐간 작품만 142편에 이른다. 142편 가운데 출시된 제품은 단 두가지. 제1회 입선작인 불교적 문양이 장식된 북마크와 제2회 입선작인 단청문양을 포장에 활용한 티슈 정도다. 두 상품을 구경이라도 하려면 사업단이 위치한 템플스테이회관 카페에서만 가능하다. 142편 중 단 두 편. 어느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수일뿐더러 그 상품마저 단 한곳에서 판매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사업단은 제품 출시까지에는 신중한 검토와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작품들의 스토리텔링, 시장성 등을 고려해 제품 출시가 결정된다는 것. 하지만 사업단에서 이들 과정을 담당하는 직원은 단 한 명이라고 한다.

사업단은 "인력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을 고민 중이며 4회 공모전이 끝난 후 그동안 선정된 작품들에 대한 총체적 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수많은 출품작 가운데 옥석을 가려 선정된 142편의 작품들이 하나씩 상품화돼 불교문화상품 콜렉션을 이루는 그 날을 기대한다. 전국 3000여 조계종 사찰을 비롯해 인터넷 쇼핑몰, 공항 면세점 등 곳곳에서 그 상품들을 손쉽게 만나는 그 날을 기대한다. 그것은 상조·생수 사업 등 조계종의 수익사업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길이기도 하다.

## 페이스북 '부루나'에 거는 기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인기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등으로 대표되는 이들 서비스는 스마트폰과 함께 폭발적으로 보급·대중화되고 있다.

불교계에서는 불광연구원 책임연구원인 서재영 박사가 페이스북 사용자들을 모아 만든 '부루나'가 인기이다. 3개월 전 결성된 부루나에는 현재 교계 안팎에서 활동 중인 스님, 재가자 등 300여 명이 활동 중이다. 이들은 페이스북 내 '부루나'라는 공간에서 교학적 논의서부터 현 정부에 대한 비판, 일간지에 비춰진 불교계 소식 등 다양한 정보와 의견을 나누고 있다.

한 사회학자는 한국에서 SNS서비스가 급속히 번지는 이유 중 하나는 한국인들이 오프라인 생활에서 쌓인 답답함과 분노를 온라인상에서 표출하려는 욕구가 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무엇보다 그동안 불자들끼리 소통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가 적었다는 데는 모두가 공감하리라 본다.

27일 조계종은 불교 혁신을 위한 대토론회를 시작한다. 여느 학술포럼 같은 형식의 대토론회가 성공하려면 종단 최초 시행되는 인터넷 생중계로 단방향 홍보할 것이 아니라 트위터, 페이스북 등에서 활동 중인 사이버 호법신장들의 의견을 토론회 장으로 끌어내야 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붓다뉴스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부산지사 : (051)632-0064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향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정통침구학 수강생 모집
침구학 기본과정
· 자격 : 관심있는 분 · 월회비 : 9만원(교재포함)
· 기간 : 주1회 3시간 총 16주(4개월)과정
· 주요과목 : 전통침구학/침뜸기초/부항/경혈경락/비만침법/미용침법/중국수침/한방기초 등
· 가정생활 진단(자가)상식을 위한 세미나입니다.
연수과정
· 소정의 연수과정 수료후 침구계(3년),중의계(5년), 결업증과 중국 침구사, 국가자격증 취득가능(해외사용가능)
· 의료 관련 업종의 소득증대효과, WTO개방 대비
· 세계 각국 해외 이민시 한방병원 설립 및 취업
※ CH중국문화원은 침구학 및 대체의학을 교육하고 연구하는 곳으로 의료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공개강좌 및 개강일정
서울206기) 1월 8일(토요반) 14시 | 신도림역2번출구
부산 31기) 1월 9일(일요반) 14시 | 전포역5번출구
서울207기) 1월 11일(화요반) 14시 | 신도림역2번출구
울산 2기) 1월 12일(수요반) 14시 | 신정동 효천빌딩뒷편
부산 32기) 1월 13일(목요반) 14시 | 전포역5번출구
제주 18기) 1월 13일(목요반) 19시 | CGV영화관맞은편
광주 20기) 1월 21일(금요반) 14시 | 화정역4번출구
CH중국문화원
www.wchina.co.kr
전국대표번호 : 1544-5359

스님...대출이 필요하십니까?
불교가 모태가 되지 않은 금융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찰관련대출…
보장되지 않은 대출이율과 이사장이나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겪어야하는 종교적 성향에 따른 대출금 상환독촉을 겪어보신 스님들께서는 이제야 귀의처를 찾았다고 안도의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 보현사신협은 불교를 모태로 스님들의 노후복지를 위해 불교병원건립 등 불교복지재단설립을 위해 창립된 전국 유일의 불교은행입니다.
1 사찰매매시 잔금대출, 불사자금 대출 전문 불교은행입니다.
2 이사장(前 제9교구 본사 동화사 주지 지성 큰스님) 스님을 비롯한 대덕 큰스님들께서 운영하시는 불교은행입니다.
3 보현사신협은 수익금을 초파일 연등법회, 제등행사, 봉축위원회 분담금 지원, 불교대학 장학금, 불교신행단체 지원 등 불교계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는 전국유일의 불교은행입니다.
4 보현사신협 전 직원은 불자로서 20년 전통의 노하우로 가람의 평가 및 사찰의 역사적 가치까지 정직하고 꼼꼼하게 평가해 드립니다.
대출금리 연 7.2~7.6% [1억 대출시 월이자 최저60만원]

불교은행 보현사 신협 확장 이전기념 (2008. 01. 28)

이사장 지성
보현사신협 문의전화 (053)428-1133
전문상담 : 전무 서일영 010-3527-1037 ,차장 정종철 010-2543-1037

수행템플스테이
(깨달은 다이어트)
진짜쉼
머리의 번뇌를 쉬고 입을 쉬고 내장을 쉬는 지혜로운 템플스테이
※절, 염불, 독경, 참선, 와선, 행선, 부처님호흡법, 알아차림을 완벽하게 배우고 점검을 받으며 실천수행
청견스님 직접 수행교육지도
잠을깨고 혼침 졸음 이기며 피로풀고 스트레스 날리고 삼매 깨달음 100% 이해하고 언제나 어디서나 마음챙김 알아차림
◉대상(누구나):출가예정자 행자 사미 사미니는 미래불공덕회에서 수련회비 전액 후원
◈수행일정(예약신청)
4차 2월 12~13일, 5차 2월 19~20일
6차 3월 12~13일, 7차 3월 19~20일
법왕정사 부산법당
전화 : 051)583-7886
www.법왕정사.kr(수행템플스테이)참조